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는 미 10년물 금리 4.9%대 진입 부담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일(목) 미국 증시는 미 재무부의 바이백 규모 둔화(최대한다 60억달러 vs 실제 집행 51.9억달러), 8월 헤드라인 PPI 컨센 상회 등에 따른 미 10년물 금리 4.9%대 진입, 사우디 8월 원유생산 감소 및 중동 운항 차질 우려에서 기인한 WTI 100달러 상회 부담으로 4거래일 연속 약세 마감(다우 -0.6%, S&P500 -0.6%, 나스닥 -0.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현재 시장은 매크로 불확실성에 반복 노출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8월 PPI의 경우, 헤드라인 (YoY, 5.4% vs 컨센 5.3%)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반면, 코어(YoY +4.6% vs 컨센 4.6%)는 예상에 부합하는 등 혼재된 결과를 기록하기는 했음. 다만, PPI상 높아진 에너지와 운송비 부담이 CPI에 전이될 것이라는 경계감도 공존.

비슷한 맥락에서 10일 ECB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결과였지만,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경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도 부담 요인. 그 여파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4.9%를 돌파하며 5.0%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WTI도 100달러를 다시 상회하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렇게 매크로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 반전의 재료는 8월 CPI에서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임. 이번에는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년동월대비 수치(YoY)도 중요하지만, 전월대비 수치(MoM)가 중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 YoY는 지난해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에 영향을 받는 반면, MoM은 미-이란 군사충돌이 만 들어낸 유가 급등이 실제 물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현재 MoM 기준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이 +0.4%(vs 7월 +0.1%), 코어가 +0.2%(vs 7월 +0.2%)로 형성. 이처럼 헤드라인 CPI 상승폭 확대가 유력하지만, 최근 유가 급등 및 10년물 금리 급등 과정에서 시장의 실질적인 CPI 눈높이가 추가로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이번 8월 CPI가 컨센에 부합하기만 하더라도, 일말의 안도감을 증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아직 AI, 반도체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이익 체력도 양호한 만큼, 8월 CPI에서 9월 FOMC까지 이어지는 매크로발 변동성 장세에서도 증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대응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메타의 신규 에이전트 AI 출시 이후 AI 수요 개선 기대감 재부각, 중소형주로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도 유가 및 금리 상승 여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대형주 수급 변동성 확대 여파 등으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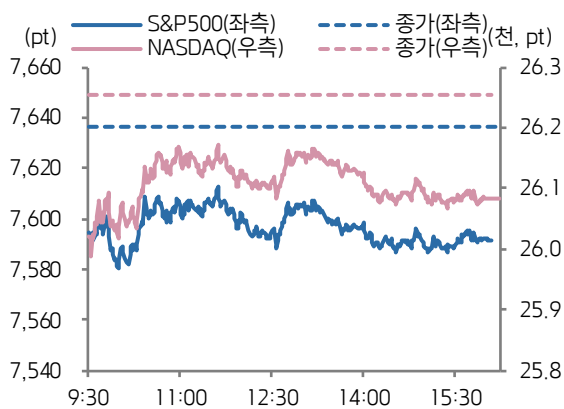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10년물 금리 4.9%대 돌파, WTI 100달러 재진입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 8월 미국 CPI 경계심리 등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속 코스피 야간선물 3%대 약세 여파로 하락 출발할 전망.

다만,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 시간외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분기 매출액 (193억달러 vs 컨센 191억달러) 및 RPO(수주잔고 6,640억달러 vs 컨센 6,400억달러)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연간 매출액 가이드(900억달러 vs 컨센 898억달러)도 상향한데서 기인. 더 나아가, 신규수주 상당부분이 고객사의 선지급(Prepay)에서 나왔다는 점은 기존처럼 “수주 확대 → GPU 구매 및 데이터센터 CAPEX 확대 → 외부 자금 조달 부담 증가 및 현금흐름(FCF) 악화”의 문제가 덜해질 가능성을 내포. 따라서 이 같은 오라클 호실적은 금일 국내 증시 장중에 낙폭을 줄여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전일 코스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발 수급 변동성, 매크로발 악재로 장중 7,000pt를 이탈하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만회하면서 2거래일 연속 7,000pt선 위에서 마감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요인.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과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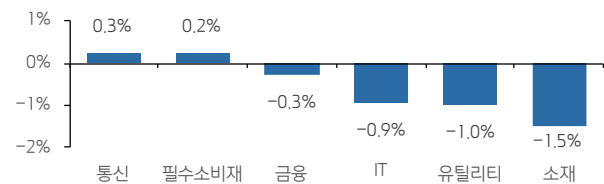
따라서 금일 8월 CPI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는 있겠으나,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유가와 금리 상승의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저항선이 역할을 했던 7,000pt가 지지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어갈 수 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업종의 이익 모멘텀과 수급 개선을 바탕으로 증시 회복 경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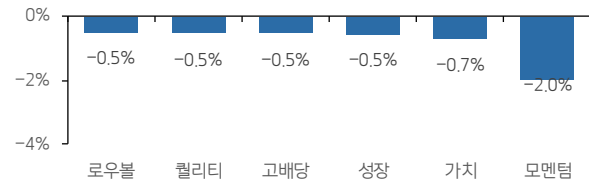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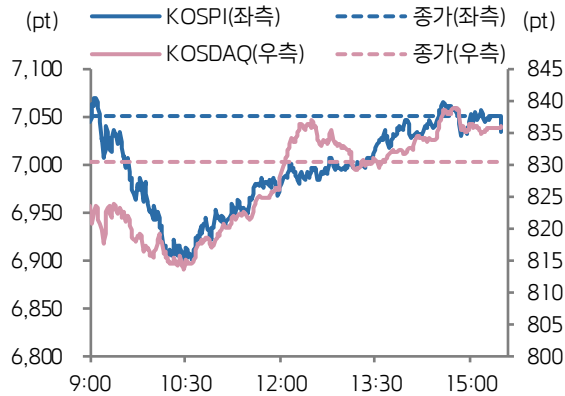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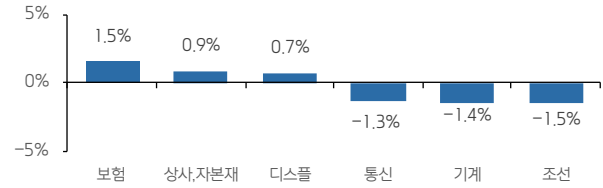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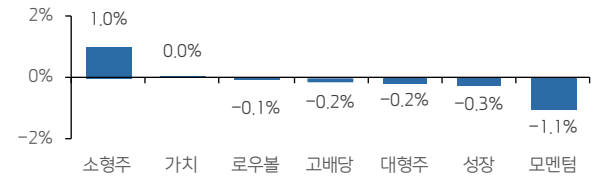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26.57	+3.56%	+20.12%	GM	86.12	+2.82%	+5.9%
마이크로소프트	492.44	+0.16%	+1.82%	일라이릴리	1,123.00	-0.11%	+4.5%
알파벳	332.60	+0.59%	+6.26%	월마트	105.73	-0.09%	-5.1%
메타	644.38	-1.42%	-2.38%	JP모건	353.56	-0.32%	+9.73%
아마존	251.89	-0.2%	+9.13%	엑손모빌	165.23	+0.61%	+37.3%
테슬라	363.56	-1.16%	-19.16%	셰브론	212.76	-0.49%	+39.6%
엔비디아	218.36	-2.37%	+17.08%	제너럴일렉트릭	105.73	-0.1%	-5.1%
브로드컴	360.83	-0.97%	+4.26%	캐터필러	805.00	-1.29%	+40.52%
AMD	503.60	-3.36%	+135.15%	보잉	204.80	-0.78%	-5.67%
마이크론	977.41	-4.9%	+242.46%	넥스트에라	82.44	-0.3%	+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033.92	-0.25%	+66.91%	USD/KRW	1,347.55	+0.56%	-6.39%
코스피200	1,112.13	-0.22%	+83.53%	달러 지수	99.08	+0.26%	+0.77%
코스닥	836.92	+0.79%	-9.57%	EUR/USD	1.16	-0.18%	-1.14%
코스닥150	1,441.76	+1.09%	-6.82%	USD/CNH	6.71	+0.12%	-3.75%
S&P500	7,591.70	-0.58%	+10.9%	USD/JPY	154.42	+0.56%	-1.46%
NASDAQ	26,081.72	-0.65%	+12.22%	채권시장			
다우	52,064.10	-0.6%	+8.32%	가격	DTD(bp)	YTD(bp)	
VIX	17.84	+8.38%	+19.33%	국고채 3년	3.927	+1.7bp	+97.6bp
러셀2000	2,890.95	-1.04%	+16.48%	국고채 10년	4.455	+5.5bp	+107bp
필라. 반도체	11,614.17	-2.66%	+63.97%	미국 국채 2년	4.586	+15.6bp	+111.3bp
다우 운송	20,562.67	-0.05%	+18.47%	미국 국채 10년	4.963	+12.2bp	+79.6bp
				미국 국채 30년	5.365	+7.6bp	+52.2bp

상해종합	3,934.40	-0.43%	-0.87%	독일 국채 10년	3.501	+5.7bp	+64.6bp
항생 H	8,274.78	-1.13%	-7.1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4,902.59	+0.19%	-12.11%	WTI	102.48	+6.69%	+79.9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7.63	+6.34%	+76.88%
Eurostoxx50	6,268.97	-0.67%	+8.25%	금	4,407.30	-1.2%	-2%
MSCI 전세계 지수	1,138.62	-0.65%	+12.22%	은	64.28	-5.38%	-8.95%
MSCI DM 지수	4,905.88	-0.66%	+10.73%	구리	646.70	-4.95%	+13.82%
MSCI EM 지수	1,744.93	-0.6%	+24.25%	BDI	3,620.00	+1%	+92.86%
MSCI 한국 ETF	182.78	-4.19%	+88.01%	옥수수	533.75	+1.14%	+15.91%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741.25	+1.72%	+31.25%
비트코인	77,244.26	-1.35%	-11.87%	대두	1,332.25	+1.74%	+25.15%
이더리움	2,460.75	-0.42%	-17.36%	커피	288.15	-1.34%	-8.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